



원자력발전사는 사회 공헌 기업이다

론 오버스 (Ron Oberth)
캐나다 원자력산업협회(OCI) 회장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사인 브루스파워(Bruce Power)와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PG, Ontario Power Generation)은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사회와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로간의 끈끈한 관계는 무한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되었다.

두 회사 모두 '지역 간의 소통', '지역을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를 통해 발전소 정비 보수로 인해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해 주고 있으며, 발전소를 개선하게 될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개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공동체는 발전소의 계속운전 및 수명연장 허가와 관련하여 그들의 의견을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에 의해 세밀하게 검토되고 계속운전에 관한 심의 시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과 임원은 지자체 및 단체, 병원, 의회, 대학 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함께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봉사 활동 및 사회적인 기여는 발전소장, 근로자, 지역 사회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사회 안에서의 활동은 '원전 운영의 사회적 라이선스(Social License to Operate)'라고도 불린다.

브루스 원자로 6기와 달링턴 원자로 4기에 계획된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캐나다 원자력발전소들은 지역 사회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이어진 지역 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클라링턴 시에 있는 달링턴 원자력발전소. 캐나다 지역 사회가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공헌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신뢰를 얻고 있음은 물론 수 년간의 원전수명 연장 및 향후 원전 운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지역 사회가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서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OPG)은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캐나다 더럼(Durham) 지역 160개의 협력사들과 함께 매년 1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달링턴에 위치한 4기의 원자로 계속운전 및 시공 계획을 통하여 발전소 지역에 수천 개의 직업을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2014년 브루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3%의 주민들이 차후 20년 내에 있을 브루스 원자로 계속운전 허가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91%의 사람들은 브루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깊게 신뢰하고 있으며, 90%의 사람들은 또한 브루스 원자력발전소가 자신들과 함께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지역 사회가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원자력발전소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다각적인 공헌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신뢰를 얻고 있음은 물론 수 년간의 원전수명 연장 및 향후 원전 운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지역 사회가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